

Contents



issue

기획특집	온라인에서 헤엄치다	
	- 여는 말	2
	- 온라인 운동을 위한 숨을 고르며	3
	- 한국성폭력상담소, 온라인에서 헤엄치다	5
	- 나와 다른 이들과 만나자, 인터넷 소통	8

info. in common

쟁점과 입장	아동성폭력에 대한 분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10
	피해자의 진술을 '듣게' 한다는 것	12
	낙태를 경험한 연간 35만 명의 여성들, 지금 그녀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나?	14

survivor's voices

생존자 말하기	水の 이야기 - 수의 치유비법 3 '투자' (연재 16th)	16
상담실에서	2009년 상담통계	21
열린터 생각	열린터 다이어리	24
	2010년, 열린터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해요	24

edutainment

몸이야기	내가 자기방어훈련을 하는 이유	26
소모임 생각	지구 반대편에서 부쳐온 힘나는 이야기 - 『난 여자들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28
만나고 싶었습니다	〈문학동네〉 어린이 팀 편집자 최윤미	30

report & membership

원대상담소	원대상담소	32
사업 p/review	스포츠토크가이드북 / 제19차 정기총회	34
회원소식	회원인터뷰 / 후원 소식	36

[온라인에서 헤엄치다]

◎ 나눔터 편집팀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서 ‘소통’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은 광장이 되어 토론이 이루어지고 시민들은 기자가 되어 시시각각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광장의 움직임이 오프라인 광장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경험도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네티즌’이라는 대중이 ‘실체’로 등장한 것이지요. 주류 매체도, 정치권도 물론 인터넷 여론에 민감해졌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이 가진 정보와 의견을 발신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 타인과 소통하거나 감으로써 네티즌들은 정치적 주체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인터넷 플랫폼의 기술 변화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각기 섬처럼 존재하던 홈페이지부터 나와 너의 말/글이 교차하고 전달되는 **블로그**, 나와 네가 실시간으로 이야기하고 더 널리 퍼지는 **트위터**까지, 웹을 향해하던 배에서 뛰어내린 개인들이 유유히 웹의 바다에서 함께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흥미롭고 유용한 것을 찾기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듣고,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나눔터> 기획특집은 온라인에서의 운동과 소통을 즐겁게 고민하고 있는 여성단체 온라인 활동 담당자들의 고민과 계획을 이야기하는 **좌담**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온라인사업팀 마도 활동가는 상담소의 온라인 매체를 소개하며 상담소 온라인 활동의 지도를 펼쳐냅니다. 마지막으로 **블로거 빨간 그림자**님은 소통의 도구로서의 인터넷과 인터넷에서의 소통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소통’은 자신을 드러내고 열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울타리 너머에 있는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이라 믿는 것,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혹은 우연히 듣게 될 누군가를 **상상**하는 것이 시작일 것입니다.

소통의 고민과 계획, 방법은 함께 나누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기획특집을 통해 온라인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며 상담소와 유유자적 헤엄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운동을 위한

숨을 고르며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생산과 정보의 유통, 사람 간의 소통이 강조되기 시작하며 개인 네티즌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온라인 공간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선전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운동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기를, 시민들과 소통하기를 갈망하며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어려움은 존재한다. 온라인 활동의 중요성에 공감하더라도 익숙하지 않은 매체에 대한 낯설과 부담은 여전히 있고, 많은 담당업무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한다.

‘이대로 괜찮은 건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만든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여성단체의 정보통신활동가 5인이 모여 온라인 활동 담당자로서의 고민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 일 시 2010년 2월 4일 목요일
- ◎ 좌담자 한국여성민우회 나랑
한국성폭력상담소 마도
한국여성단체연합 이루용
한국여성노동자회 수진
한국여성의전화 유연
- ◎ 정 리 온라인사업팀 마도

KSVRC

대세는 온라인,
알고는 있지만

현안에 대한 모든 것을 흡수해야 하는 것이 온라인, 그러나 밀리는

것도 역시 온라인인 것 같다. 오프라인으로는 이슈나 사안을 외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 핵심이고 메인이라는 인식은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온라인의 중요함에 대한 합의는 있지만 각자의 일에 집중하다보니 한계가 있다. 하지만 외화시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홈페이지는 활성화 안 되어 있는데 블로그 만들고, 게다가 파워블로거도 되어야 하고. 전 지역 활동가들 이야기 들으니 2010년 열심히 해야 할 것에 블로그와 트위터가 있더라. 못 하면 낙오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체질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대표나 결정권자의 생각이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온라인 활동을 통한 눈에 보이는 성과나 꾸준한 실행으로 인한 변화, 온라인의 힘과 위력을 실감하지 못해 동기부여가 더 안 되는 건 아닐까.

온라인의 힘과 변화의 경험?

이루용 작년 3.8 세계여성인날 기념 해피빈 모금이 잘 되었다. 여성 이슈를 주제로 해피빈 메인에 회원단체들 모금함을 노출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유연 이전까지는 지역에서 거리 캠페인을 위주로 하다가 작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한 해피빈 모금을 계기로 온라인 모금을 하게 되었고, 해피로그 개설부터 기획까지 꾸려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극을 받은 것 같다. 온라인 지지서명도 잘 되었다. 2주 내에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싸이월드나 다음 등을 통해 7~8천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았다. 거리서명으로 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성과가 없지는 않은 것 같다. 운동에 있어 온라인 활동은 유효하고, 몇 배의 성과를 단시일 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다만 사업 담당자를 잘라야 한다(웃음).

마도 2008년 블로그를 열었고, 당시 소장이 쓴 아동성폭력피해자 관련 에세이가 메인에 노출 되어 반응이 있었다. 온라인의 힘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그때인 것 같다. 작년은,故장자연 사건 이슈로 진행한 'UCC 행동단'이 반향이 있었고, 온라인모금은 사업에 맞춘 소액목적금금 기획하니 달성률 높았다. 아동성폭력 이슈 즈음하여 피해생존자지원금 모금이나 음주감경 관련 온라인 서명도 잘 되는 등 작년에는 이런저런 성과와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다.

니랑 작년에 민우회 반차별 블로그가 있었는데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0명 정도였고 콘텐츠도 좋았다. 그곳에서 민우회를 접하고 민우회에서 만든 책을 사겠다고 연락주신 블로거도 있었다. 그런데 한 팀에서 하나의 이슈로 만든 블로그이다 보니 민우회 전체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온라인 상에서 영향력이 있는데도 정작 조직 내부에서 빛을 발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

2010년, 소통을 향한 한 걸음

수진 새 블로그 개설을 계획 중이고, UCC를 제작해 블로그에 업로드하려고 한다. 어떻게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고민되는 부분이다. 20대 관련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이기도 하다. 좋아하는 일로 얻을 수 있는 기동력을 이끌어냈으면 한다.

니랑 올해 블로그를 개설하려고 한다. 블로그는 팀별, 사업별로 꼭지를 가져가서 콘텐츠 기획해야 하는데, 사업 중간에 끼어들기 어려워 고민 중이다. 전체 활동가 모여 블로그 기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지기로 했다. 어떤 블로그가 적합할지, 파워블로그를 분석해보기도 하고, 동기부여도 하고, 진짜 고민이 뭔지도 알아보고.

유연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려는 계획이다. 단체들 보면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해피로그, 각종 이슈나 사업의 서브 홈페이지 등 사이트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운영에 대한 고민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매체별로 주제를 달리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많

은 사이트에 계속 같은 내용을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다양한 사이트를 세분화시켜 운영하고, 온라인 담당뿐 아니라 주제별 담당 활동가들이 직접 운영주체가 되도록 역할도 나누려 한다. 블로그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목표이다.

마도 사업 별로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활용을 의무화하려고 한다. 부가적인 업무가 아닌 의무라고 생각하도록 하고, 반드시 하는 것으로 만드는 거다. 그리고 유튜브나 플리커 등의 공유 사이트를 활용해서 상담소 20년 자료들 나누려고 한다.

이루용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여러 단체의 '연대체'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우리 단체만의 개별 활동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비슷한 것들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생각도 든다. 회원단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던 '정실한 웹살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 결국은 그거다, 일단 해보자는 것. ☺

한국성폭력상담소, 온라인에서 헤엄치다

◎ 온라인사업팀 마도

상담소는 온라인 여러 곳에 동지를 틀고 있습니다. PC통신 시절을 거쳐 홈페이지, 블로그, 최근의 트위터 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활동을 알리고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소가 온라인을 어떤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많은 매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 꼭지에서 다룬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고민이 바로 상담소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웹2.0시대를 지나 3.0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넓은 웹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좀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책상 앞에서, 행사장과 교육장 안에서 바빠 움직이듯 웹에서도 바빠 돌아다니고, 재밌게 헤엄치며 놀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의 온라인 활동을 통해 상담소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즐겁게 노력하자고 다짐하고는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담소가 꾸려나가고 있는 온라인 동지들을 소개합니다. 다음의 모든 온라인 매체들은 한 곳 한 곳이 소통을 위한 창구이고, 따라서 열린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야 복잡복잡하고 활기찬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으시는 <나눔터> 독자 분들도 함께 하고 싶은 공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01 홈페이지

상담소의 홈페이지는 1999년 개설되었습니다. 여성의 연대와 자매애를 뜻하는 Sisters.or.kr을 도메인명으로 삼아 네티즌과의 연대와 정보공유, 교감을 이루고자 한 홈페이지는 이후 몇 차례의 개편을 거쳐 현재에 이릅니다.

웹1.0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블로그 출현 이전의 인터넷 상에서는 홈페이지가 단체의 대표매체이자 거의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따라서 단체의 모든 정보들이 홈페이지에 집중되었고, 소통의 장도 홈페이지라는 울타리 안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온라인 매체들이 활성화된 현재, 정보들은 홈페이지를 벗어나고 확산되어 누군가의 정보와 교차하고, 소통하게 됩니다.

현재의 홈페이지는 상담소 온라인 공간의 대문이자 커다란 자료창고와도 같습니다. 여러 검색어를 통해 상담소라는 곳이 궁금하여, 혹은 필요하여 방문하게 되는 곳입니다. 상담소의 역사와 소개를 살펴보거나 현재의 주



요 이슈와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다양한 인터넷 공간으로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담소의 모든 활동 보고와 입장에 대한 의견이 시시각각 업로드되고 있으며, 연 1회 정기총회 자료집과 재정보고 및 상담통계를 공개하여 1년 활동을 나누는 등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02 블로그 _ 뚝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08년 봄, 상담소는 활동과 의견, 고민을 성명서로만 발표하고, 신문에서 보도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블로그를 열게 됩니다. 처음으로 온라인에서의 '소통'을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드나드는 광장에 상담소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했습니다.

2009년에는 포털 사이트의 서비스를 떠나 StopRape.or.kr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담소 활동가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라는, 자칫 낯설 수 있는 단체의 블로그에서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기대할지를 생각해보고, 많은 사람이 상담소를 가까이 느끼도록 노력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우연히' 상담소 블로그를 들어와보았다가 '계속' 방문하고 싶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곳이었으면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홈페이지와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 상담소의 일상을 좀 더 나누고, 상담소의 의견을 보다 쉽게 전달하며 함께

<http://StopRape.or.kr/>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를 건넨다면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노력하는 2009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새로운 활동들이 싹을 틔우려하는 지금, 상담소가 블로그를 통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아주 많습니다. '뚝다! 한국성폭력상담소'라는 이름처럼 뛰고 있는 상담소의 발자취와 호흡을 선명하게 담아내는, 그로 인해 모두가 함께 신나게 뛰고 싶어지는 블로그가 되었으면 합니다.

03 트위터 _ @ StopRape

<http://twitter.com/StopRape>

블로그에 이어 인터넷의 유용한 소통 플랫폼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단연 트위터라 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 twitter는 이름 그대로 하루 종일 '재잘대는' 마이크로블로그[■]이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입니다. 실시간 각 변하는 상황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매체입니다.

상담소는 작년 12월 말, 트위터에 첫 재잘거림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주로 긴 글들로 말을 걸었지만 트위터를 통해 바로 지금, 바로 여기의 상담소 이야기를 전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건네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블로그처럼 긴 호흡이 아니어도, 꼭 우리의 운동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일상을 나누다보면 상담소를 보다 가까이 느낄 것이라 믿습니다. 활동가들 역시 트위터에서 열심히 '놀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상담소와, 활동가와 인연을 맺은 이들, 그리고 이들과 인연을 맺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담소의 재잘거림이 전해지고, 함께 '지금'을 이야기하다보면 상담소의



■ 마이크로블로그microblog는 블로거가 올린 한 두 문장 정도 분량의 단편적 정보를 해당 블로그에 관심이 있는 개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통신 방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짧은 텍스트 형태이므로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고, 이용자 사이에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면서 채팅을 하는 것과 비슷한 체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온라인 인맥구축 서비스입니다.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 정보 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참가자가 서로에게 친구를 소개하여, 친구관계를 넓힐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입니다. 트위터, 싸이월드, 마이스페이스 등이 이에 속합니다.

〈참고〉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

작은 지저귀이 상상하지도 못한 먼 곳까지 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사람

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그것이 무엇이던 상담소는 기뻐하고, 귀담아 듣고, 성실히 답할 것입니다.

04 온라인 모금 _ 해피빈

<http://happylog.naver.com/ksvrc>

상담소는 2006년부터 해피빈을 통한 온라인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의 한 해 운영비를 시작으로 밥을 지어먹는 상담소 활동가들의 점심 식사비, 피해생존자에 대한 지원금까지 상담소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재정을 모금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모금은 단순히 필요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모금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담소는 우리의 활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부를 통해 반성폭력 운동을, 상담소의 활동을 지지하는 마음이 모여진다고 믿습니다.

2009년에는 해피빈 모금함을 통해 6회 달빛시위를 홍보할 수 있었고(155,500원), 으랏차차 호신가이드북을 재발간할 수 있었습니다(623,800원). 또한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버라이어티생존토크쇼>의 제작을

후원할 수 있었고(1,762,500원),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5,000,100원). 100원, 200원이 활동의 한 조각, 한 조각이 된다는 것을 상담소는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피빈 콩의 정기후원자 분들, 해피빈을 통해 상담소의 회원이 되신 분들과의 인연 또한 소중합니다. 다른 곳 이 아닌 상담소를 후원해주시는 것은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떠한 활동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올해는 기부자 분들에게 상담소의 활동을 더 잘 알리고, 더 많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고마운 인연을 이어가려 합니다.

05 온라인 자료 공유Share

_ 플리커
_ 유튜브
_ 슬라이드쉐어 등

<http://flickr.com/>
<http://youtube.com/>
<http://slideshare.com/>

상담소는 올해로 개소 19년이 되었습니다. 20년 가까운 시간, 그만큼 많은 기록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20주년을 앞둔 올해는 '나눌수록 풍성해진다'는 믿음으로 자료 보관실과 앨범, 컴퓨터 하드디스크 안에서 먼지 쌓이고 잊혀져가는 자료들을 꺼내어 나누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로드되는 자료들은 CCL[■]을 준수합니다.

간혹 현행 저작권법을 우려해 활동사진이나 자료를 요청하거나 허락을 받기 위한 연락이 옵니다. 상담소의 자료는 출처만 밝히면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어찌보면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따라서 CCL이 적용되는 공유 사이트에 상담소의 자료를 올리면 전세계

의 사람들이 (따로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상담소의 자료를 이용하고, 저작권자인 상담소의 이름을 출처로 표기하게 됩니다.

공유 사이트의 검색을 통해 상담소의 '달빛시위' 사진이 세계 어딘가의 'Take Back The Night'에서 소개되고, 이 사진으로 바다 건너 사람들이 한국의 'Take Back The Night'과 상담소를 알게 되어, 연대를 제안을 하는 장면까지 상상해봅니다. 보도자료가 아닌, 인터넷의 사진 한 장으로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나눔이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

■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이용허락이 이루어지며 원칙적으로는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이용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CCL은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입니다.

<참고> 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 홈페이지(<http://www.creativecommons.or.kr/>)

나와 다른 이들과 만나자, 인터넷 소통

◎ 블로거 빨간 그림자

REd SHadow
<http://redshadow.pe.kr/>

인터넷에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이나 전문 미디어의 기사 말미에 있는 댓글 창에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들은 독립되

어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포털과 미디어의 운영자에 의해 쉽사리 삭제되거나 제재를 받는다. 후자는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자신의 이름 혹은 아이디를 내걸어 운영하는 것이다.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미니홈피 등이 이에 속한다. 검열과 제재 없이 자신의 의견을 독립적인 공간에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포털과 미디어와는 달리 이슈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 중 현재 가장 큰 위력을 갖고 주목받는 매체는 블로그와 트위터이다.

줄줄이 엮이는 글들, 블로그

블로그Blog는 다른 말로 '인 미디어'라 불린다. 홈페이지가 일종의 '살롱'으로서 집주인이 자신의 취향과 성향에 맞는 사람들을 살롱 공간으로 끌어들이며 대화를 나누는 형태라면 블로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신문을 만들어 남의 집 마다 배달하는 것에 가깝다. 살롱은 초대장이 없으면 들어가기 힘든 것이다. 방문객은 살롱 마담의 취향에 의해 세심하게 선별된다. 유대 관계도 오프라인에 못지않게 끈끈하며, 곧잘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그에 비해 블로그는 특정 주제를 거대한 웹 공간으로 모아 올리는 행위이다. '아이티 지진이 났습니다. 구호 성금을 보냅니다!' 라는 글을 쓴다면 그것은 웹 공간의 많은 이들에게 배달되는 신문이 되고, 그 신문을 받은 사람은 트랙백이라는 엮음 장치를 통해 글에 글을 연결한다. 이때 보내게 되는 신문을 포스트post라고 한다.

포스트-잇을 상상해보자. 커다란 칠판이 있고 그 칠판 위에 '양심적 병역 거부' 라는 주제가 쓰여져 있다. 그러면 A도 이 주제에 관해 글을 써서 포스트를 칠판에 붙여놓고, B도 붙이고, C도 붙일 수 있다. 마치 관광 엽서 수집 장을 펀치로 찍어 둥그런 고리로 연결하여 길게 늘어뜨린 장식을 만들 듯 특정 주제에 대한 글들이 고리로 묶이는 것이다. 네티즌인 나는 그 엽서 중 하나만 접하게 되어도 그 뒤에 굴비 엮듯이 줄줄이 달려있는 링크들을 통해 다른 글들도 접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미디어라 부르지 않지만 블로그는 미디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호 전송을 통한 쌍방향의 소통 가능성이 거대한 여론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140자의 실시간 편지, 트위터

그렇다면 트위터Twitter는 무엇일까?! 전 세계를 강타했던 블로그의 열풍이 순식간에 트위터에 대한 열풍으로 뒤바뀌었다. 트위터는 140자의 글자 제한이 있는 미디어이다. 게시물 하나를 쓸 때마다 짧은 글짓기를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글자 제한이 오히려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경우도 많다. 동시에 정보를 압축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속해지고, 간결해진다. 우표를 붙여서 보내던 편지가 순식간에 이메일로 대체되더니 더 나아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바뀐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구구절절한 미사여구를 이모티콘이 대체하고, 완곡하게 전달하던 내용이 단도직입적이 된다.

트위터는 그 자체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매체는 아니다. 오히려 여론을 생산하는 매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일종의 '행운의 편지' 이다. "이 편지를 받으시면 당신은 50여 통의 답장을 보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던 그 행운의 편지의 파급력을 상상해보자. 또는 당신의 핸드폰에 특정 문자가 전송되면 저장되어 있는 주소록 모두에게 재전송된다고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몇 단계 거치게 되

면 순식간에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에게 정보가 보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은 0원에 가깝고, 파급되는 속도는 메신저만큼 실시간이다. “소통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호들갑도 이 정도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대중을 향해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다. 작가 혹은 기자 뿐이었다. 편집진과 작가들에 의해 밀려나게 된 목소리, 그 언저리에 블로그 혹은 트위터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촉발시킨 욕망이 숨어있다. 그 욕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이나 정치가, 혹은 전문 작가나 기자의 글을 읽는 것도 재미있고, 유익한 경험이다. 그러나 모든 이들은 비록 불완전하고, 비전문적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시야로 발견한 세상에 대해 말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 거대 자본의 언론과 미디어가 인터넷을 경계하게 된 까닭도 여기에 있다. 텍스트를 생산하는 자의 권위와 이에 맞서서 자신만의 텍스트를 생산하고 싶어 하는 이들의 욕망이 첨예하게 맞서게 된 것이다. 과거라면 인쇄소를 경영하거나 출판 루트를 알아야만 가능했지만 이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로 인하여 사람들은 별 다른 인프라와 자본 없이도 텍스트를 생산하고,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인류가 처음 가보는 영역인 셈이다.

소통 방식으로 블로그 혹은 트위터, 홈페이지 등 무엇을 사용해도 좋다. 온라인을 통한 소통을 시도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온라인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넓게 고민해 보자. 나는 살롱을 원하는가, 신문을 원하는가, 메신저를 원하는가. 후자로 갈수록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홈페이지가 백 명 단위의 사람들을 상대한다면 블로그는 천 명 단위, 트위터는 만 명 단위가 된다. 어떤 미디어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맞닿게 된다.

인터넷 소통은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이슈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될 수 있는 텍스트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긴장할 필요는 없다. 소소한 일상일지라도 결국 사회적 개인이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쓰게 되는 일상 이야기는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민과 맞닿을 수밖에 없고, 영화를 보면서 쓰게 된 감상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독자로서의 감상이 된다.

그러나 글을 읽는 사람이 나와 전혀 다른 의견과 관점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하는 건 ‘소통’이 아니다. 그건 굳이 말하자면 ‘복제’일 것이다. 고로, 온라인으로 소통한다는 것은 고집스럽고, 비논리적이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임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사람은 서로 다른 견해와 의견을 갖고 있다. 초등학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막상 의견이 충돌하고, 관계와 불화하는 것을 겪을 때는 당혹스럽다. 하지만 소통도 경험의 산물이며, 토론도 훈련의 결과이다. 우리가 우리와 불화하는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해질 때 나를 바꾸고, 상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인터넷은 소통의 경험을 쌓는 훈련의 장이며, 나와 다른 의견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정보의 바다이다. 인터넷 소통은 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제공해주며,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준다. ☞

나의 생각을 의미있는 여론으로

블로그가 소통이 되는 순간

아동성폭력에 대한 분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 소장 이윤상

아동성폭력 피해자 ‘만’ 보호하라?

지난 해 조○○ 사건으로 불리운 아동성폭력피해 사건이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언론은 대대적으로 성폭력 문제를 다루었고 정부는 대책을 내놓기에 분주했다. 관계 전문가나 반성폭력 운동단체들도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바빠 움직였다.

피해자가 아동이었다는 사실 때문일까? 정부 관련 부처에서 내놓은 정책을 보면 아동성폭력 가해자는 엄

중 처벌하고, 아동성폭력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의 움직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 사건이 여론화 된 이후 제기된 수많은 개정안들은 감경사유배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및 보호방안 등 오랫동안 반성폭력 운동현장에서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대폭 포함하고 있으나, 모두 아동성폭력 피해에 한정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까닭

반성폭력 운동진영에서는 성폭력이 개인이 운이 없어 느닷없이 당하는 피해가 아니라, 불평등하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다. 대다수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라는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더는 논증이 필요 없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은 단순히 치안 강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약자에게 성적 폭력을 손쉽게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이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킬 때에만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반성폭력 운동이 통념에 맞서고 부당한 질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균열을 내면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일에 집중하여 온 까닭이다.

이 운동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가 피해라는 것을 주장하고 인정받는 ‘투쟁’에서부터 시작된다. 남성의 조금

난폭한 성행위는 남성답고 주도적이며 통제할 수 없는 욕정에 따른 것이라는 믿음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지배하는 가부장제 전략의 산물이다. 그러니 술을 마셨으면 그건 욕정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봐줘야 하고, 사활을 건 저항이 없었으면 그건 충분히 헛갈리게 했으므로 오히려 상대방인 여성이 빌미를 제공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통념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만 하고, 반성폭력 운동은 이 통념을 깨야만 하는 사명을 안고 있는 것이다. ‘성관계’ 혹은 ‘화간’이 아니라 ‘강간’이었다는 주장 자체가 남성중심적 규범과 질서로 다져진 이 사회에 대한 반론이며 투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녹화진술이나 음주감경배제 등은 형사사건 피해자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보편적 조치일 수도 있지만, 반성폭력 운동가들이 이 문제를 핵심적으로 제기해온 데는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다. 끊임없는 피해자 의심

과 비난이 멈추어야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성폭력의 문제를 술과 욕정의 문제로 환원하는 통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야 성관계가 아닌 성폭력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인권침해를 이야기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가할 수 있으며, 성폭력이 사회문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아동 보호로 둔갑한 피해자 권리

아동같이 성적 의도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아동은 무성적인 존재라는 믿음), 연령차나 사회경제적 의존도 등에 의해 취약한 존재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회적 약자에만 ‘보호받을 권리’를 한정한다면, 이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수많은 경우는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아동성폭력 가해자에게만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면, 결국 부부강간, 테이트 성폭력 등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성폭력,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로부터 발생한 직장내성폭력 등 일상에서 너무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의 피해자는 계속되는 술 공방, 욕정 공방(성폭력으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에 ‘욕정에 못이겨……’라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에 더욱 강도 높게 시달리게 될 것이다. 피해자의 태도, 이해관계, 저항여부는 계속해서 의심받을 것이며, 여기서 사회적 권력과 불평등의 문제는 모두 삭제된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분노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형벌

을 강화하지는 여론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뜨거운 여론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들은 모르는 사람에 의한 범죄, 심각한 신체적 후유증을 남기는 범죄 등이었다. 대부분의 성폭력은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고, 장기적/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가해행위는 때에 따라서는 법적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도 하고, 둘 사이에서만 발생한 폭력이라 물적 증거를 대기조차 어려운 경우도 많다. 무거운 양형의 부담을 안고 더욱 엄격한 잣대를 사용할 재판부를 생각하면 형량 상향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현장에서는 고소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피해자, 어렵게 용기를 냈지만 한발 한발 내디딜 때마다 각종 의심과 비난에 시달리는 피해자, 무고죄와 명예훼손의 공포에 떠는 피해자의 모습에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말이다. 어린 나이에 시작된 피해가 10대, 20대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의심의 눈길을 먼저 받아야만 한다.

탈정치화되는 성폭력 문제

아동성폭력에 대한 분노가 거칠고 클수록 성폭력은 나와 무관한 사건이라는 가정이 더욱 견고해지기 마련이다. 성폭력 가해자는 모두 정신이상자라는 등, 애들을 상대로 그러는 사람은 교정이 불가하니 아예 거세를 해야 한다는 등, 비정상인에 의한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전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일상을 성찰해보는 기회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번 아동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천인공노할 노릇이라며 분노하는 글은 술하게 보았지만, 나의 동료, 친구, 부하직원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또 나의 직장, 가정, 학교의 문화를 뼈아프게 성찰하는 글은 본 적이 없다.

보호의 대상인 아동에게만 피해자 지원책이 전면 손쉽게 수용됨으로써 ‘권리’를 통해 성폭력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성차별적 사회질서에 균열을 내고자 했던 애초의 계획은 무산되고 성폭력 문제는 극심하게 탈정치화 된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온갖 정체 불분명한 공포심과 사회에 대한 불신 외에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피해자의 진술을 '듣게' 한다는 것

○ 전국성폭력상담소 ·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시민감시단 간사 예지

전국성폭력상담소 ·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성폭력 수사 · 재판 시민감시단>에서는 해마다 수사 · 재판과정에서의 여성인권 디딤돌, 걸림돌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2009년도 디딤돌, 걸림돌을 발표하였습니다. 선정된 수상자 중에는 피해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재판부(디딤돌)와 피해자의 진술 능력이나 특성을 무시한 채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걸림돌)가 함께 있어 눈에 띄었습니다.

진술이란 발화자 스스로 자기의 경험을 기억해내고, 해석하고, 말하는 서사적 작업이다. 법정처럼 서로 상이한 각자의 사실이 경합하는 곳에서는, 진술은 하나의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혹은 개인적 의미로서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법은 이러한 진술을 '일관성'으로 가늠하며 신빙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언제나 사건의 범죄 사실의 확정 유무에 대한 판단과 맞닿아 있다. 즉, 재판부가 일관성을 문제 삼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없음'으로 판단하면, 성폭력은 '없었던' 일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또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진술이 전후 모순된다'는 점을 들어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성폭력과 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09년 성폭력 수사 · 재판상의 여성인권보장 디딤돌 · 걸림돌'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진술 일관성'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눈에 띄었다. 비슷한 사건 정황을 가진 두 개의 사례에서, '진술일관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객관적 '사실이 아니'며 (누군가의) '판단'이라는 점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각기 디

딤돌, 걸림돌로 선정된 다음 판례들은, 지적장애인 성추행 사건으로 여타의 증거가 부족하여 진술이 관건이 되는 사건들이다. 각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비슷하게 서술하면서도, 상이한 법적판단에 의해 결론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부터 당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과의 사이가 원만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함하거나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②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시간과 장소가 고소장 제출 당시,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고소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이를 기억해 내는 과정에서 다소 혼동했거나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고(중략)..... 단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다소 혼동하거나 또는 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는 점.....」

이 판결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진술함에 있어 전후 다른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 당사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근거로 성추행 범죄의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가 하면 아래의 판결은 위처럼 무고의 가능성이 낮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⑨원심은(중략).....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

이고, 그 주변사실 등은 별로 인지 또는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일정한 부분에서는 일반인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 인지능력을 보이는 점을 근거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심히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피해자는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낮은 지적수준과 인지력으로 인해 시간이나 장소 개념이 희박하고, 언어구사력의 부족으로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때로는 강한 집착력과 고집이 있음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위축되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종종 상대의 질문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장애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중략)……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기에……’

즉, 이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대부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입을 막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억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 판례들의 논리를 따져보면 이렇다.

첫 번째 판결 : ‘대부분일관’ + 구체적 정황의 차이
= 진술 일관성 있음 (=범죄사실 유)


두 번째 판결 : 대부분일관 + ‘구체적 정황의 차이’
= 진술 일관성 없음 (=범죄사실 무)

이렇듯 범죄사실의 유무가 판단되는 중요한 문제에서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법적 결정이 확연히 달라지는 이유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신지체가 있는 성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압박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

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이는 첫 번째 판결의 전술 부분이다. 위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을 판단함에 있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특성이 잘 고려되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때문에 진술의 일부가 전후 모순되는 사실은, 두 번째 판결과는 달리 피해자의 특성에 의해 여과되어 일관성 있는 진술이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전후 진술이 모순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목적으로 객관성을 지향하기에 ‘분명’한 포섭과 배제의 경계를 원하는 법제도의 특성상, 이는 기술적으로 탈락된다.)

‘진술’이란 발화자의 기억과 해석의 과정이지만, 동시에 그 순간의 청자의 시각과 해석이 섞여드는 과정이 포함되는 작업이다. 마찬가지로 성폭력 사건에서의 ‘진술 일관성’의 문제란 법적 사실을 확정짓는 데 있어서, ‘피해자가 기억하고, 해석하며, 말하는 것’을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살펴본 바처럼 ‘진술이 일관되다, 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폭력 사건에서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성폭력을 어디까지나 비장애/남성중심적인 언어에 기대어 설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한계에 있기도 하다. ‘객관적’이라고 믿어지며 좀처럼 의심받지 않는 가부장제적 체계 속에서 피해자의 말은 지금까지 철저히 부인되어 왔기에, 여성의 말이, 경험의, ‘피해’라고 하는 것을 들으라¹⁾고 외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심판대에 놓이게 하는 취약함을 지적 받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폭력운동의 전략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의 객관성은 재판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며, 진술의 일관성과 그에 따른 진실 여부란 양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달린 구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양날이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게’ 한다는 것.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방점을 찍을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최소한으로나마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앞서 두 판결에서 알 수 있지 않았는가. 

낙태를 경험한 연간 35만 명의 여성들, 지금 그녀들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나?

◎ 성문화운동팀 보좌

2010년 2월 3일 오전 10시, 프로라이프 의사회(진오비)는 낙태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 세 곳을 고발조치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는 태아의 생명의 소중함을 내세워서 불법낙태를 강력하게 근절하겠다고 주장한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에 따르면 모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이외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며, 심지어 강간 당한 여성들도 다 아이를 낳아 길러야 한다는 극단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낙태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사회 환경 속에서 형사처벌만을 고집하는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행보는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절박함과 위급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는 오늘도 낙태 시술을 거부당한 여성들의 절박한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2009년은 1~2월 상담 282건 중 6건만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과 낙태 관련 상담이었다면, 2010년은 1~2월 상담 339건 중 19건이 모두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정부에서 폭력피해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원스톱지원센터마저 '강간에 의한 피해인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며 고소 혹은 강간입증을 하기 전에는 낙태시술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강간으로 인한 합법적인 낙태의 경우에도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서 여성들이 찢절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중에 과거 20~30만원이면 가능했던 인공임신중절수술비용은 임신 5주는 100만원, 임신 14주는 300만원까지 치솟고 있으며, 벌써부터 중국으로 원정낙태를 가는 여성들이 있다는 소문들이 들려

오고 있다.¹ 그야말로 우려했던 모든 상황들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거창하게 태아의 생명권을 내세우며 시작된 낙태고발조치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낙태문제는 미국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에 기반한 Pro-life측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Pro-choice측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논쟁이다. 한국의 경우 1970년대 정부에서 인구조절정책의 일환으로 낙태를 일종의 피임법처럼 널리 권장하였고, 한국에서는 낙태는 별다른 논쟁 없이 암묵적으로 허용되었다. 다소간 무임승차했다고 볼 수 있는 낙태논쟁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정부의 태도가 바뀌자마자 지금에 와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논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내세워 낙태는 살인이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으며, 수정란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이미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수정란 그 자체가 바로 태아이며 생명이라면, 생명의 맹아를 가진 정자와 난자 또한 과연 생명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자위를 통해서 정자를 배출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생명을 제거하기 때문에 살인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렇듯 원칙론에 근거한 생명권은 극단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생물학적인 측면으로 논의를 한정할 뿐만 아니라, 생명권이 기반하고 있는 복잡미묘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제거하고 있다.

또한 낙태반대의 이유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의 근저에는 여성에 대

한 뿌리 깊은 통념이 자리잡고 있다. ‘낙태는 문란한 성 관계를 가지다가 덜컥 임신하게 된 무책임하고 젊은 여자애들이나 하는 것이다’라는 가부장적인 통념 말이다. 그래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 낙태를 하는 이기적인 여자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친다면 낙태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2005년 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미혼여성보다 기혼여성들이 더 많이 낙태를 하며, 1회 이상 반복적으로 낙태를 하는 숫자도 기혼여성이 더 많다.²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기혼여성들이 더 많이 낙태를 하는 현실은 이 사회가 얼마나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인가를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낙태가 단지 생명을 경시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단순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낙태가 이루어지는 사회경제적 이유에 대한 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성애 섹스에서 아이는 여성이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며 남녀 모두가 양육의 책임이 있지만, 혼외관계 임신의 경우 많은 남성들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의 실무자조차도 10년 간 자신이 도운 100여명의 미혼모 출산 중에서 남성이 책임지겠다고 나선 경우는 단 두 번뿐이었다고 증언한다.³ 하지만 낙태를 반대하는 논자들은 이 모든 사회경제적 이유들을 외면하며, 원칙론적이고 극단적인 생명론을 내세워 마녀사냥 하듯이 여성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낙태를 둘러싼 많은 논의들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낙태가 일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태아의 보호에도 실패하고 있다. 태아는 여성에게 자신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아직은 여성의 신체 내부에 머물러 있는 잠재적 인간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낙태는 여성의 삶에 대한 통제가능성과 뗄 수 없는 문제로서, 여성의 신체적 통합성에 기반한 몸의 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평등권·재생산권 등을 두루 검토하여 여성의 근본적 권리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⁴

정부는 뜨거워진 여론에 떠밀려 지난 2월 26일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내놓았지만, 이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도 담고 있지 않은 그야말로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정부를 비롯하여 프로라이프 의사회까지 모두가 연간 35만 건의 낙태⁵가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은 ‘낙태공화국’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정작 왜 낙태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해마다 35만 건의 낙태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낙태를 경험한 35만 명의 여성들이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도 그 수많은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협소한 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낙태가 일어나는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들이 분석되어야 하며, 보다 많은 여성들의 경험이 해석될 필요가 있다. ☯

1 과거 유럽에서 전면적 낙태금지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많은 여성들이 낙태시술을 위해 국경을 넘었으며, 무면허 낙태시술 중에 목숨을 잃었다. 해마다 200만 건의 무면허 낙태 시술이 이뤄지는데, 그 중 개도국이 97%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국제가족계획연맹(IPPF)은 해마다 7만 명이 무면허 낙태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추산한다.

2 고려대학교(2005),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건복지부.
 ▪ 결혼상태 : 미혼 42.0%, 기혼 58.0%
 ▪ 시술이유 : 미혼 96.0% - 사회경제적 이유
 (미혼이어서, 미성년자, 경제적 어려움)
 ▪ 기혼 76.7% - 가족계획(자녀불원, 터울조절, 원하는 성별 아님)
 ▪ 시술 당시 반복 낙태(이전 낙태횟수 1회 이상) : 기혼 57.5%, 미혼 49.5%
 ▪ 시술 당시 현존 자녀수 0명 : 전체 45.4%, 기혼 10.8%

3 「인공임신중절의 현황과 대책」(2005.9.13) 공청회에서 낙태반대운동연합 공동실무책임자인 김현철씨의 발언; 오승이(2007), “법여성주의를 통해 본 낙태죄의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재인용.

4 오승이(2007), “법여성주의를 통해 본 낙태죄의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5 고려대학교(2005),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건복지부.

수의치유방법 3 '투자'

◎ 水

돈

모든 게 비용이 드는 것 같다. 치유의 과정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 돈이 없다면 치유의 과정도 어렵단 말인가?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다.

빛을 내서 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수입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그 사건으로부터 빠져 나온 지 17년이 된 지금까지도 나는 개인상담을 받고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치유를 위한 과정에서 볼 때 개인상담은 치유의 초기단계에서도 필요하지만 치유의 과정 중에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받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개인상담은 찬찬히 자기 기억을 풀어내보고, 그때 느꼈을 나의 감정들을 세밀하게 살펴주는 과정이다. 힘들어도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견디며 살아남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나에게 '그때 정말 힘들었다, 아팠다, 죽어버리고 싶었다……'의 여러 감정들을 쏟아내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상담비가 많이 들긴 했지만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친한 친구가 해주기에는 너무 버거운 어떤 부분이 있기에 친밀하면서 무엇이든 털어놓을 수 있는 편안한 개인상담자를 두는 것은 치유의 과정을 한결 수월하게 한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이 없을 때가 있었다. 나는 상담자에게 아주 솔직하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상담을 계속 받고 싶은데 앞으로 몇 개월 간 돈을 못 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죠? 상담비를 지금처럼 내야하면 못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상담은 계속 받고 싶어요.”

선생님은 기존 상담비의 1/3로 해주시고, 계속 상담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방법을 찾으면 어떤 식으로든 찾을 수 있다. 요즘은 성폭력피해자 치료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상담소를 통해 지원을 받아도 도움이 될 것이다.

치유글쓰기 워크숍을 배울 때도, 스토리텔링을 배울 때도 내 문제를 어떻게 글로 풀어갈까 고민하며 각 과정을 배울 때 돈이 들었지만 아끼지 않았다. 돈과 함께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 시간과 나의 정신이다.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나의 치유를 위해 투자할 때 투자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의 진전이 있을 것이다. 가해자를 죽도록 패거나 심지어 죽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다보면 돈은 없는데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쉽게 포기하지 말자.

몇 년 전 사이코드라마를 다닐 때는 워크숍 비용만 해도 적게는 20만 원에서 40만 원이었다. 버는 족족 프로그램 참여에 바치던 때였다. 사이코드라마를 하는 디렉터가 지방에 있어 KTX 요금으로 사용한 돈도 한 두 푼이 아니었다. 당시 100만원 남짓의 월급생활자인 나로서는 나의 치유를 위해 수입 중 절반 이상의 매달 투자한 셈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사이코드라마를 디렉팅 하는 날이 되었다. 모든 교육참여자들은 자신이 디렉팅을 처음 하는 날, 기념으로 20명 남짓의 같이 배우는 사람들에게 저녁식사 대접과 2차, 3차까지 대접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디렉팅을 하는 것보다 나는 밥과 2차, 3차를 쓰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일주일 내내 고민하던 나는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다.

“선생님, 저요, 디렉팅 마치고 밥 살 돈 5만 원 밖에 없어요. 그게 제 최선이고, 이 이상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5만 원에 맞는 밥집을 소개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와”

나는 디렉팅하는 내내 ‘아 20명한테 5만 원으로 누구 코에 붙이나…….’ 걱정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어느 때와 같이 우리를 삼겹살집으로 안내했다. 일단 먹고 싶은 만큼 삼겹살을 먹었다. 나는 일을 벌일 때 뒷일은 잘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일단 내 뱃속에 들어간 거 누구도 못 꺼낸다는 식철학이 있었던 나는 맛있게 열심히 먹었다.

선생님이 조용히 나를 불렀다. 귓속말로 “5만 원 나한테 주고, 뒷일은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해주셨다. 선생님께 5만 원을 넘긴 후 난 속이 다 후련했다.

그리고 나서 2차, 3차를 마음 놓고 갔다. 그러다 그만……. 나는 소주 3잔에 필름이 끊기고 말았다.

나는 평소에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말았다.

“○○○, 우리나라에서 사이코 드라마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

“언니야, 언니는 남편이 교수지 언니가 교수야? 왜 교수처럼 보이고 싶어해?”

“그리고 언니는 좋겠다. 남편이 벌어들여 주는 돈 가지고 이런 데 와서, 난 여기 다니면서 생활비가 모자라. 돈 걱정 없어 좋겠어.”

“난 내 상처 때문에 왔는데, 오빠는 뭐 정신과 의사라 이거 환자한테 써먹으려고 왔어?
다들 배가 불러가지고, 이런 데 왜 오고 난리야?”

(* 그들의 대답이 걸작인데……. 그들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흘릴 수 없어 아쉽다.)

나는 할 말 못 할 말 막 했다. 그때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난 돈 없으면서 이렇게 당당한 것 처음 봤네. 애가 뭐랬는지 알아? 지난주에 나한테 전
화하더니 자기는 5만 원 밖에 없으니까 5만 원에 맞춰달라는 거야. 근데 그 말하는 게
너무 당당한 거야. 너 오늘 하고 싶은 말 다해봐. 여기 있는 것들한테 다 해봐.”

난 그날 완전 신나서 하고 싶은 말들을 마구 쏟아냈다. 속이 다 시원했다.

돈이 없어도 돈 없음으로 기죽지 않고, 약간의 톨기를 발휘하면 오히려 신나고, 멋지게
살 수 있다. 나를 위해 필요한 투자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최선을 다해 투자하고, 없
지만 꼭 하고 싶다면 여러모로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아무튼 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고, 마음을 다하는 투자는 효과가 있기 마련이다.

식·음 & 의·복

“애는 돈은 없어도 입은 고급이야”

내 친구들이 나의 식생활에 대해 놀릴 때 하는 말이다. 나는 먹는 것 하나를 고를 때도
어디 것인지, 농약은 얼마나 사용한 농산물인지, 식품첨가물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꼼꼼
하게 살펴보는 편이다. 나는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고 싶은 마음에 돈이 더 들더라도 생협
의 유기농 또는 무농약 농산물을 주문해서 먹는다. 소고기 버거 하나를 먹을 때도 어느 나
라 소를 사용하는지 꼭 물어본다. 친구들 말대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아니라서 앵겔지
수가 높은 편이지만 나는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내가 나
를 귀하게 여겨주어야지 하는 마음에 먹을거리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먹는 것뿐 아니다. 이번 겨울 너무도 추운 저녁이었다. 천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발이
너무 시려워 서러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추위를 많이 타서 추워지면 눈물이 나곤 했다. 그
래서 나는 어그 부츠 매장으로 가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츠를 골랐다. 그런 후 아주 조금
망설임 후 ‘난 이정도 대접은 받을 자격이 있어’ 하는 마음으로 망설임 없이 구입했다.

유난히 추운 날이 많았던 올 겨울 나는 어그부츠 덕분에 따뜻해서 행복했다. 어그의 세
계에 발을 들여놓은 후 왜 진작 몰랐을까 싶을 정도였다. 나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린 시절
부터 귀하게 대접받지 못했던 것을 보상해주려고 스스로 노력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비싸더라도 다른 사치를 포기하고, 그것에 투자했다. 나를 강하게 보이게

해주는 색상의 옷을 사는 데 한동안 꽃혔던 때도 있었다. 또 혼자서 비싸고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서빙을 받으며 스테이크를 썰기도 했다. 나는 특히 글을 쓰는 지금 같은 때는 내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카페나 레스토랑을 찾아간다. 혼자 따뜻한 허브차에 스콘을 먹으며 글을 쓰는 지금 내가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

그러나 나는 원칙이 있다. 매달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은 없을 것, 신용카드 쓸 때는 보유한 자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만큼만 선결제할 것, 의생활에 지출이 많은 달은 식생활을 줄이고, 식생활에 지출이 많은 달은 의생활에서 줄일 것 등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 빚을 지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늘 지켜왔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해왔다.

타이

내가 할 수 있는 투자에는 한계가 있다. 내가 가진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 또한 나의 치유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좀 이기적이고, 뻔뻔하게 보이더라도 나는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타인이 나에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부터 정신적인 것까지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한 투자를 도움으로 여기며 비참해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일이다. 학교에서 하는 영어캠프에 참여하고 싶었다. 참가비가 비싸서 이리저리 마련해보았지만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들어가던 길에 총장님을 만났다. 총장님은 평소 인사를 나누고, 짤막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그날은 기숙사를 한번 둘러보고 싶다고 하셨다.

“그럼 제 방으로 초대할게요. 제 방 친구들이 깜짝 놀라겠는걸요.”

여대생 4명이 함께 쓰는 좁은 방으로 초대받은 총장님은 우리가 대접하는 따뜻한 차 한잔과 과자 조각을 맛나게 드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겨울방학 영어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방학 때 고향집에 내려가지 않으면 겨울 영어캠프에 참여해보는 건 어때요? 이번에 미국에서 특별히 모시고 온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 같던데.”

“그렇잖아도 저도 하고 싶어서 알바해서 돈도 좀 모았는데요. 너무 비싸요. 이제 겨우 절반 밖에 못 모았는걸요. 정말 하고 싶은데…….”

“아 그래요? 그럼 이 돈 봉투가 그래서 생겼나?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고 왔더니 이걸 흰 봉투에 넣어서 직접 주던데 세어보지도 않고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이거라도 보태요. 어때요? 받아줄래요?”

“어? 정말 저 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전 거절 안 해요. 잠깐만요. 얼마인지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서른. 우와 저한테 필요한 30만 원 맞네요. 고맙습니다. 영어캠프 프 참가할게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총장님을 보낸 후 같은 방 친구들은 어떻게 그 돈을 그 앞에서 세어보냐고 했다. 아무튼 나는 그분의 투자로 영어공부 한 자라도 더 했고, 지금까지도 영어캠프에 참여했던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돈이 없어 못할 것들이 많았던 순간들 그때그때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 나에게 직접 돈으로 투자해주었던 이들이 꽤 있다. 그분들의 투자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타인의 투자는 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을 만나 사랑을 듬뿍 받는 것도 좋은 투자라고 생각한다. 사람에 대해 기본적인 신뢰가 없던 나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친구들의 사랑으로 인해 사람들을 조금씩 신뢰하게 되었다. 사랑으로 채워야 할 공간은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것 같다.

연인과의 관계는 정말 더 어려웠는데……. 이건 또 설을 풀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점만 말하고 싶다. 모든 사랑은 아프다. 그러니 일단 사랑할 기회가 오면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사랑부터 하고 보는 게 남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만큼 영혼을 성숙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도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특히 나는 사랑받는 것에 있어 내가 잘 주지 못해도 미안해하기 보다는 고마워하며 그 사랑을 받아들이곤 했다. 이기적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부족한 내 사랑의 공간을 채워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나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해졌다.

사람마다 다 때가 있는 것이니 내가 별로 주는 것 없이 받고 있다고 너무 미안해하지 말자. 타인의 투자를 넉넉한 마음으로 받을 줄 아는 것도 치유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

■ 水的 한마디

요즘은 직장에 일이 바빠서 한동안 잊고 지냈던 옛 사람들, 옛 일들을 떠올리는 지금 이 시간이 참 감사하다. 그래……. 그래……. 지금의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된 게 아니구나. 당신의 치유를 위한 투자유치를 해보라. 의외로 많은 이들이 당신을 위해 각자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내어놓을 것이다. 당신은 그 만큼의 가치가 있다.

2009년 상담통계

◎ 여성주의상담팀 리무

1991년 4월 개소 이래 2009년 12월 31일까지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총 42,829건(64,641회)이며, 이 중 성폭력 상담은 총 35,166건(82.1%)으로 2009년에는 총 1,481건(2,305회)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상담 방법별로는 전화상담 1,649회(78.7%), 메일상담 72회(3.4%), 면접상담 375회(17.9%)였다. 전년 대비 상담건수가 줄어든 반면 상담횟수가 늘어난 것은 지속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사건지원에의 요구 등이 반영된 결과다.

성 폭 력 상 담 동 향



1

피해자 요구의 다양성을 담지 못하는 현 사회적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피해자의 생애전반을 고려한 사회적 기반 마련 시급

성폭력 법 개정 이후 성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 및 가해자 처벌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하나 이것으로 피해자 요구의 다양성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법적·의료적·심리적 지원 외에도 여러 대응 방안을 구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이는 법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성폭력 사건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 기반이 피해자의 요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의학적 지원의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중절은 '고소'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의심을 받거나 시술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었고, 강간에 의한 임신중절 수술이 합법이라 하여도 사회적 통념 때문에 기록이 남는 합법적인 임신중절보다 위험하고 경제 부담이 되는 불법 시술을 받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또 한 가지 큰 문제점은 대부분의 지원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의 사건해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의 특성상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호자인 경우 법적 소송단계를 밟지 않아 친

권이 남아있고 성폭력 내용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후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양의무를 가지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거나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시 대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같은 분야에서 가해자와 함께 일을 하는 경우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진입을 막거나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꿈과 비전을 모두 버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은 단순한 의학적·심리적·법적기반의 마련으로 극복될 일이 아니므로 다양한 대응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생애전반에 걸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여 또 다른 피해로부터 보호받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



2

‘직장 내 성희롱’ 교묘한 가해자 편들기, 자정능력 강화할 수 있어야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직장 내 성폭력 건수가 성인 성폭력 상담건수(893건)중 320건으로 3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제화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직장 내 성폭력 이후 나타나는 양상은 크게 피해자에 대한 부당 처우 및 해고, 가해자에 대한 묻지마 엄벌, 사건 처리에 대한 시간 끌기와 은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피해자에 대한 부당 처우 및 해고는 갈수록 정교화 되고 있다. 우선 피해자의 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를 해고한다. 그리고 사건이 잠잠해지는 2~3개월 후에 피해자 몰래 가해자를 타 부서로 복직시키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더욱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내모는 부당 행위로 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둘째, 가해자에 대한 묻지마 엄벌이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사업장에 성폭력 사건으로 접수되면 사건의 정황이나 피해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해고한다. 언뜻 보면 피해자 중심의 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한 사측의 발 빠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올바르게 정확한 사건해결 노력 없이 형식화된 가해자 묻지마 처벌은 피해자의 침묵, 직장 내 다른 구성원의 침묵을 낳을 뿐 이다. 직장의 위계적·여성 비하적 문화와 관련이 깊은 직장 내 성희롱은 조직차원의 성찰과 반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따라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침묵만을 낳는 조치는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사건 처리에 대한 시간 끌기와 은폐이다. 피해자의 보고에 의해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 가해자, 참고인 조사 이후 이유 없이 조사를 반복하거나, 임원 회의의 소집 시기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끈다. 이후 뚜렷한 피해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사측의 조사를 정지시키다 결국 결정 자체를 하지 않고, 없었던 사건으로 종료한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는 형사 고소할 수 있는 기한을 지나게 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기회까지 박탈당하게 된다. 현재 직장 내 성희롱은 형사고소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조직 내 자율적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측과 성원이 성폭력사건에 대해 원활한 논의를 통해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피해자의 손쉬운 진정, 사측의 엄격한 조사와 같은 시스템 뿐 아니라, 조직성원의 책임의식이 함께 할 때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



3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증가’,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 물을 수 있는 제도마련 시급

성인남성 성폭력 가해자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비율의 증가가 눈에 띄고 있다. 집단성폭력의 경우 청소년가해자는 또래 청소년 집단에게 인정받거나 남자답게 보이기 위하여 성폭력에 가담하거나 더욱 공격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 성폭력에서 유독 강간피해가 높은 것도 주목할 점이다. 또한 범죄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여성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등 성에 관한 사회 통념이 청소년의 또래 문화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미비하여 실행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사회봉사, 가해자 교육으로 대체될 때가 많아 피해자의 법적 처벌의사가 거의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청소년 가해자 교육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정·교화를 기대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청소년 가해자의 대리인인 부모가 사건을 해결하려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럴 경우 청소년 가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죄를 뉘우치거나 피해자에게 사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피해 또한 심각하다. 피해자의 연령이 낮은 경우 학교나 동네에 소문을 내어 학업에 지장을 주거나 ‘앞길에 창창한 아이의 앞날을 망친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려는 일도 많다. 청소년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적자기결정권과 양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성별권력차가 존재하는 잘못된 성문화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고, 성에 관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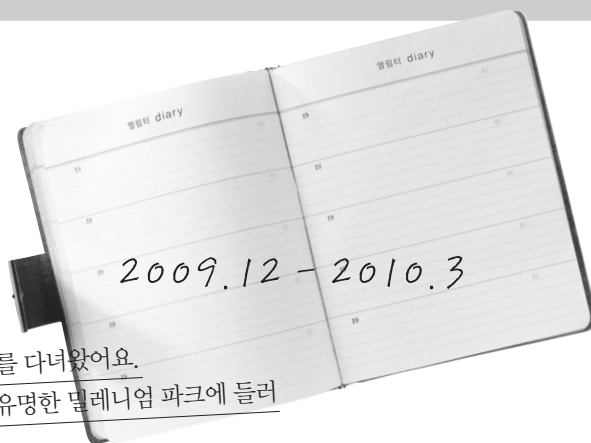


4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증가’, 학교에서 피해자 외면하지 않아야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비율의 증가가 눈에 띄는 만큼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도 늘어져야 한다.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늘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드러나지 않는 일상적인 성폭력이 훨씬 많다.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교사, 친구로부터의 2차 피해로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동급생으로부터의 성폭력피해가 있었던 피해자의 경우 교사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이 불러 교육하고 상담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심화되었다. 또한 성폭력 피해사실이 또래집단에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학교를 전학하거나 자퇴하는 경우도 일반적이었다. 특히 피해자가 전학을 하더라도 온라인 매체의 발달로 타 학교와의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면서 소문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잠잠해질 때까지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다. 피해사실을 인지한 교사와 학교 측의 대응은 피해자가 이후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학교 측은 성폭력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우선 분리하고, 피해자를 상담하여 피해자·가해자의 보호자를 어떻게 만나고 협상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특히 또래집단으로부터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 상담교사가 투입되어 집단 구성원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일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왜 그토록 교사와 학교 측에만 은밀로 하고 싶어 하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

Diary 열림터 다이어리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열림터 식구들과 함께 경주를 다녀왔어요.
 신라의 유적지를 돌아보고 '선덕여왕' 촬영지로 유명한 밀레니엄 파크에 들러
 모두들 신기해하며 즐거워했고,
 아침에는 토함산에 올라 일출을 보면서 새해소망을 비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어요.
 설날에는 오랜만에 다같이 외식을 하고
 [아바타]를 관람하면서 식구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월에는 지난 3년 반 동안 열림터에서 활동해 온 거북(이향심)이 퇴직을 하고
 공명(문숙영)이 열림터의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림터 블로그와 나눔터를 통해 자주 인사드릴게요.

▶ 선덕여왕 촬영지 '밀레니엄 파크' 로 나들이



2010년, 열림터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해요



새해를 맞이하여 이번 나눔터에서는 올 한해 열림터 계획에 대해 써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새해에는 야심찬 목표와 계획을 갖기 마련인데 올해로 16세가 되는 열림터는 지난 해까지
 지속적으로 해오던 활동들과 더불어 몇 가지 새로운 계획을 짜 보았어요.

1 처음으로 열린터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열린터에서는 학교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아이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가능하면 아이들이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늘 신경을 쓰고 있지요.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열린터에서 생활하는 동안은 마치 인큐베이터 속에서 사는 것 같은 보호를 받다가 퇴소 후에 혼자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될 때, 당황하지 않고 규모 있게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실시하려고 해요. 용돈을 지급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아껴쓰라고 당부하지만 선생님들의 말은 잔소리처럼 들리는지 잘 지켜지지 않더군요. 이에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용돈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올바른 소비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계획된 소비를 통해서 향후 자립에 대비하게 하며, 장래를 위한 저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2 퇴소자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비록 성인이 되었다고는 해도 아이들이 열린터에서 퇴소 후 자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기존의 퇴소자들은 활동가들과 비정기적인 만남을 가졌었는데, 이를 정기적인 만남으로 유도하여 이들의 당면한 고민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해보고 가능한 주변자원을 연계하여 아이들이 퇴소 후에도 고립감을 갖지 않게 하고, 열린터와의 인연을 끊지 않고 이들에게 열린터가 든직한 지지체계가 되고자 합니다.

3 열린터 업무의 안정화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두 명의 활동가가 교체되면서 생활인들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까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들마다 담당활동가가 상담 및 학교생활, 일상생활지원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아이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고 서로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활동가가 바뀌어도 아이들에 대한 마음은 모두 한마음이기에, 수시로 활동가들끼리 회의를 하여 업무분장을 새로이 하고 보다 나은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16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열린터가 추구해온 가치와 원칙들을 유지하면서도,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다양해진 아이들의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열린터가 되고자 합니다.

4 연구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기존의 퇴소자들을 대상으로 열린터 퇴소 이후의 성장과 생활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연구를 통해 향후 심터 생활인에 대한 지원 방향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사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퇴소자 자립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열린터 활동가를 포함하여 외부 연구자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목표를 갖고 2010년을 시작하였는데 벌써 세 달이 다 되어가네요.

매일의 일상에 묻혀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연초의 계획들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늘 긴장하면서 올 한해를 보내려고 해요. 아울러 열린터 다이어리에도 더욱 희망차고 밝은 글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열린터 청소년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부끄러움이 없는 한 해가 되고자 다짐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열린터에서 밝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자립하는 날들을 기약해 봅니다. ☺

내가 자기방어훈련을 하는 이유

◎ 날 해

#1 운전강사를 처음 만났다. 50대쯤 되보이고 장신구는 전부 금이다. 칭찬을 한다. '예쁘게생겼네ㅋㅋ' '아감사해요' 운전대에 손을 올린다. '아니위를잡으라고' '아네' '아니이쪽이쪽'. 손을 잡는다. 축축하다. 언덕코스다. '여기선차체의떨림을느껴야해눈을감아봐' '네?' '왜?이렇게뽀뽀라도할까봐?' 얼굴이 가까워졌다 멀어진다. 직각코스. '자저기안내선이랑니어깨랑일직선이되야해' '아이렇게요?' '니어깨는거깃니뒤로기대서다시한번봐봐' 어깨를 만진다. 조물조물. 한마디 대꾸도 못한다. 좁은 공간. 남자 둘. 적나라한 스킨십.

#2 방 안에 박스들이 쌓여있었다. 이삿짐센터 팀장이 내방을 담당한다. 40대 후반의 커다란 아저씨. 웃이 많은걸 신기해한다. '넌어떻게형보다웃이네배는되니' '제가형인데요' '아나니가귀여우니까동생해' 무슨 말이 하고싶었던 걸까. 이래저래 새집으로 먼저 도착했다. 이삿짐 차도 곧이어 들어온다. 팀장이 내린다. 엄마와 내가 인사를 한다. 팀장이 나를 꺼안더니 들쳐메 버린다. '가볍네' 웃어야 했다. 낯선 공간. 가족들 앞.

#3 너무 춥던 이사 다음 날, 두 시간 떨어져 있는 치과를 갔다 돌아오는 길.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야 한다. 택시 승강장에서 10여 분째, 택시가 안온다. 할아버지가 택시승강장 쪽으로 걸어온다. '학생, 어디까지가?' '당산이요' '나영등포시장 가는데같이타고가지않을래?' '아네뭐그래요' '학생이니까내가2천원낼게. 영등포시장은기본료도안나와' '아네알아서주세요' '고마워. 택시타면택시기사한테둘러대기나잘하자고. 나를삼촌이라고부르면의심안할거야' 할아버지의 임기응변에 감탄하며, 굳은 택시비에 기빠하며 함께 택시를 잡는다. 택시를 타면서 할아버지의 은밀한 싸인, 엉덩이 특독.

삼 년 전쯤? 왔다갔다 하던 여성주의공간에서 처음으로 '자기방어 훈련'이라는 말을 들었다. 성폭력 피해생존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가지기 시작한 나로서는 당연히 함께 하려고 했는데, 헌데 '우리는 괜찮은데, 다른 여성들이 불편해 할 것 같아.'라며 양해를 구해왔다. 여성주의자가 되어가던 중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면 당연히 난 같이 안 하는 게 맞지.'라며 일말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다. 딱히 그 당시의 상황이 배제의 경험으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프로그램이 열릴 때마다 신청했지만 번번이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고, 그때마다 '아 그런가보다.' 싶을 뿐이었다. 근데 마지막으로 거절당한 작년 구월 쯤, 뺨 터진 것 같다. 도대체 내가 왜?

'남성'이라는 권력과 역할을 버려가면서 살아가는, 남성으로 보이는 나의 일상의 경험을 꺼내기 시작해 보니 와, 예상했던 것보다 나는 많이 '이성애/비장애남성적 폭력'의 대상이었다. '진짜 남성'이 되지 '똥' 한(=여성스러운, 약한, 흐름흐물한) 남성(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력이 참 쉽게 나타난다.

진짜 남성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진짜 남성이 되려면 맞아보기도 해야 하고, 싸워보기도 해야 한다는 의로운(!) 마음에 건드린다. 자기와 같아야 하는데 다르니까 그냥 짜증나는 마음에 건드린다. 자기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냥 심심해서 건드린다. 때려도 되는 대상(남성)이기 때문에 또 건드린다. (적어도 그들이 믿고 있는 '진짜 여성'을 때리는 건 죄악으로 읽히나 보더라. 뭐 그렇다고 안 때리는 것도 아니다. 뭐냐 너네 정말!) 아무튼 오만가지 이유로 '남성'을 때리는 죄책감을 한껏 덜며 마음껏 건드린다. 건드린다는 건 때린다, 폭력적인/음흉한 눈빛

지구 반대편에서 부쳐온 힘나는 이야기 『난 여자들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 여성소설읽기모임 해밀

『난 여자들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는 열세 명의 라틴 아메리카 여성작가들의 단편소설을 모은 책이다. ‘개인 속에 함몰된 하찮은 이야기’를 양산하는 한국 여성문학계에 귀감이 되기 위해 번역했다는 옮긴이의 말이 허튼 소리라고 소설들이 스스로 증명할 만큼, 한 편 한 편이 모두 매력적인 이야기들이다. 그 중 어렵사리 두 편을 골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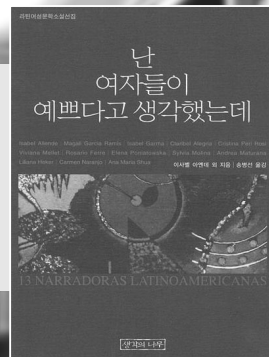
홀륭한 어머니처럼 - 홀륭은 개뿔

짧은 소설 분량 내내 아이들은 거의 악마처럼 엄마를 오븐에 밀어 넣고, 깨진 유리조각위로 넘어뜨리고, 발을 빼게 하며 괴롭힌다. 참다못한 엄마가 아이들을 때리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홀륭한 어머니’라면 이렇게 아이들을 혼냈을까 하는 것이다. 그때 뿐만이 아니다. 식료품을 배달시키면서도, 아 기에게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면서도, 그녀는 끊임없이 ‘홀륭한 어머니’를 떠올리며 자책한다.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의 이야기가 어쩔 이렇게 나와 내 주변의 이야기 같은지. 나도 내 친구도 우리 엄마도, 어디에도 존재 하지 않는 착한 딸, 홀륭한 어머니, 알파 걸이 되려고 꺾꺾거리며 살고 있으니 말이다. 그뿐이 아니다. 아이들의 끊임없는 폭력처럼, 이곳에도 숨을 고를 틈조차 주지 않고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이 가득하고, 분한 마음에 짱돌이라도 들고 던져보지만, 이내 ‘내가 너 무 예민한 걸까’ 하고 자책하는 모습마저 슬프도록 닮아있다. 믿었던 아기의 손톱에 엄마가 각막을 다치는 마지막 장면을 읽고, 약간은 우울해진 마음을 위로해 준 것은 ‘입 다문 마을’이었다.


입 다문 마을 - 닫혀있던 기억 열기

‘산타 마리아 델라 벤디시온’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그곳은 혁명군이 해방시킨 영토의 첫 방어선이었지만, 정부군에 의해 주민들은 모두 몰살을 당하고 마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오늘부터 산타 마리아 델라 벤디시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군의 명령에 따라, 주변 마을 사람들조차 그곳을 기억에서 지우고, 모두 입을 다문 채 잊기 위해 살아간다. 그렇게 산타 마리아 델라 벤디시온은 완전히 사라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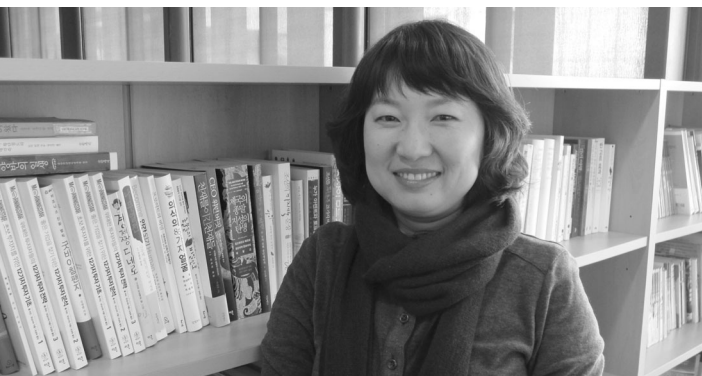
듯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기억을 잃은 한 남자가 나타나면서 사정은 달라진다. 그는 모두 잊은 산타 마리아 델라 벤디시온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벌어진 참혹한 폭력을 기억하며, 마침내 그곳의 사령관이었던 아벨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 낸다. 그 순간 그를 뒤쫓은 정부군의 총알에 아벨은 죽지만, 이제 산타 마리아 델라 벤디시온은 다시 존재하게 된다.

아벨이 자신의 이름을 또렷이 기억해내는 장면만큼이나 인상 깊었던 것은 잊기 위해 살아가는 ‘입 다문 마을’, 산헤로니모의 모습이다. 기억과 말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어서, 주민들은 사랑하는 이들이 살았던 산타 마리아 델라 벤디시온을 잊기 위해 모두 굳게 입을 다문 채, 우울함과 두려움 속에 매일을 보낸다. 훌륭한 어머니가 되라는 등의 당치도 않는 명령과, 크고 작은 폭력에 지쳐 차라리 입을 다문 내 모습이 자연히 떠올랐다. 말도 안 되는 일은 연일 일어나지만, 한편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에 젖은 한국의 모습도 겹쳤다.

하지만 아벨이 그와 마을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산타 마리아 델라 벤디시온이 다시 제 자리를 찾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명령들을 기억하고 이야기 하는 것 또한 내 자리를 찾기 위한 길의 일부가 아닌지 위로해 본다. 열세 편의 소설과 ‘지붕 뚫고 하이킥’과 어린 시절 친구들 이야기를 오가며 진행되었던 소모임원들의 열띤 대화도 역시 제 자리를 찾기 위한 중요한 여정일거라고 믿는다. 어쩌면 이렇게 여자들이 말하고 글 쓰는 것이야 말로, 이 책의 옮긴이와 같은 이들이 가장 두려워한 일이 아닐까 하며 글을 땀는다. 

“ 꿈을 꾸고 희망을 잃지 않는 능력은 젊은이들의 특권이며,
글을 쓴다는 것은 바로 꿈을 쓰고 희망을 갖는 행위이다.
글을 쓰는 데는 여러 동기가 있지만, 나는 젊음을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글을 쓴다. ”

- 비비아나 메예트, 작가의 말 中 -



만나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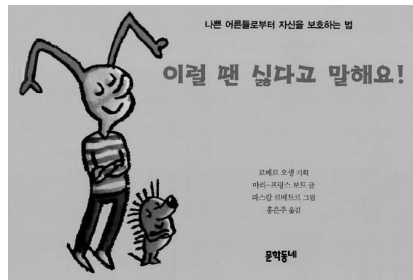
〈문학동네〉어린이팀 편집자

최윤미

◎ 성문화운동팀 두나

나눔터
edutainment

최근 몇 년 간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과 성/성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성/성폭력은 몰라도 된다'는 태도가 아이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분위기도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지요. 아이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라도 해오면 당황해 말문이 막히곤 합니다. 이번 나눔터가 만난 분은 바로 이런 고민을 '책'을 통해 쉽게 풀어내고 계신 분입니다. 〈문학동네〉어린이팀의 최윤미 차장과 나눈 어린이 책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실래요?



“조그맣다고 얕보다가는 큰 코 다쳐요!
고슴도치 가시 맛 좀 볼래요?”

—〈이럴 땐 싫다고 말해요!〉중—

〈문학동네〉는 상담소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몇 년 전 〈문학동네〉에서 아동성폭력 관련 책 두 권을 출판하면서 인세 중 일부를 기부하기로 결정했었어요. 그때 주변 분에게 성폭력 관련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더니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소개해주셨거든요. 그렇게 기부를 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지요. 〈문학동네〉에서 후원하는 인세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은 일정 금액을 더해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후원에 대한 태도도 변했답니다. 상담소를 후원한 경험이 계기가 되어 이제는 인세나 수익금 일부를 다른 단체에도 후원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에 인세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어요.

올해는 상담소와 함께 어린이들의 성/성폭력 관련 단행본을 출판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세요.

올해는 〈문학동네〉의 후원으로 상담소에서 개발한 대안적 성/인권 교육 프로그램 〈인권감수성교실〉을 상담소와 함께 단행본으로 출판할 예정입니다. 〈인권감수성교실〉은 생물학적 지식 전달을 넘어 '관계'를 중심으로 성폭력, 성차별 등에 대한 아이들의 감수성과 성평등 인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인권감수성교실〉의 이런 취지와 지난 2년 간 진행했던 시범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책으로 잘 풀어내려고 해요. 그리고 작년 〈문학동네 어린이〉 인터넷 카페 <http://cafe.naver.com/kidsmunhak/>에서 진행했던 부모를 위한 성교육 〈性깔있는 성교육〉도 책으로 엮어 보려고 하고요. 이 책들을 통해서 아

이들과 부모, 교사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학동네〉에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출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책에서 아동성폭력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즘 아동성폭력 관련 책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높아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책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도 종종 받습니다. 예전에 비해 아동성폭력에 대한 책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가 아동성폭력 관련 책을 검토하고 만들 때는, 글이나 그림에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 반영된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아이 안에 내재된 힘을 믿고 복돋아 주고 있는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내재된 힘이란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힘, 치유하는 힘, 긍정의 힘을 말합니다. 또 성폭력 문제를 개인이 감당하고 맞서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틀 안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가도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아동성폭력을 다룰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동성폭력을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에게 무조건 조심하라고 하기보다는 위험 상황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아이들 스스로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담소 회원들에게 좋은 책을 추천해주세요!

『이럴 땐 싫다고 말해요!』마리-프랑스 보트, 문학동네, 1999를 추천하고 싶어요. 이 책은 '내 몸의 주인은 나'라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고 강하게 담겨있는 책이에요. 제가 특별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일상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잘 알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이 책에서는 말하고, 웃고, 노래하고, 겁이 날 때는 소리치고, 무서운 일을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입을 맞추는 나의 '입'이 무엇이든 마음껏 표현하라고 있는 것이며, 겁지 않더라도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위험 상황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가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아이들과 같이 연습해보기도 하고요.

또 주인공 미미가 고슴도치같이 뾰족한 가시를 가진 것도 재미있는데요. 아이를 작고 연약해서 보호해야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뾰족한 가시를 내면에 가지고 있는 씩씩하고 적극적인 존재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럴 땐 싫다고 말해요!』는 세심하게 고민해서 만든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책들이 많이 출판되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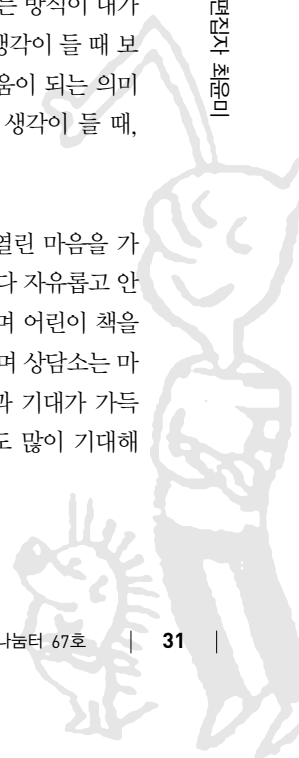
어린이 책을 만드는 편집자로서의 삶은 어떤가요?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편집자는 방송 PD랑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앞에 드러나는 일이 아니고 안 보이는 곳에서 기획부터 시작해서 작가 만나고, 원고 만들고, 교정하고 삽화에 광고, 보도자료 작성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하는 복잡한 일을 하기 때문에 편집자들은 늘 바쁘고 정신없죠. 특히 어린이 책은 편집자들이 깊이 개입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더 그렇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다이나믹한 과정이 즐겁고 재미있어요.

편집자로서 책을 만들면서 제일 행복할 때는 책이 잘 나갈 때예요(웃음). 중쇄하면서 작가에게 전화할 때 정말 기분이 좋고 기뻐서 춤을 추기도 하죠. 책이 잘 판매된다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이기도 해서 더 즐거워요.

어린이 책은 대부분 좋은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린이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표정도 밝고 순수한 편이에요. 팀 분위기도 다른 팀들과 많이 다르고요. 좋은 이야기들을 기획하고 읽으면서 내 삶도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만드는 좋은 책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내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가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걸 깨닫는 순간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사회가 아이들의 성에 대해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아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어린이 책을 만든다는 최윤미 차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담소는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차장님의 이런 고민과 기대가 가득 담긴 <문학동네>의 어린이 책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뚝다! 상담소



상담보고 2010년 1월~2월

총 335회 / 총 215건 (성폭력 : 304회 / 190건)
성폭력상담 중 전화 251회 / 면접 47회 / 온라인 5회 / 기타 1회

12.12 한해보내기

2009 한해보내기가 12월 12일 늦은 5시부터 8시까지 열린 프로그램으로 아가자 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해주시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담소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4~29 맥스앤스펜서 바자회

상담소 운영기금을 '후원 의류 바자회'를 통해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MARKS & SPENCER와 함께 한 기금마련 바자회가 약 한 달 간 열렸습니다. 성주그룹에서 지난 해 12월 18일 총 1100벌에 이르는 여러 종류의 의류·잡화를 보내주시어 순수의 5,130,400원을 모금하여, 바자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성주그룹을 비롯하여 바자회의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6~7 2010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 참석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010년 여성운동의 방향과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는 여성의 안전권에 대한 의제가 제기되었고, 이후 분반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총회에서는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신설의 인이 통과되어, 향후 여성의 안전권 등 새로운 의제발굴과 정책 제언에 우리 상담소도 적극적으로 함께 활동할 것입니다.

1.28 제19차 정기총회

1월 28일, 제19차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회원 분들과 2009년의 사업과 2010년의 계획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2009년 사업 및 결산 보고 및 승인, 2010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보고 및 승인, 임원 선출 승인, 신임 및 퇴임 상근자 보고, 공로상 증정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걱정, 따듯한 조언을 충실히 반영하여 나가기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합니다. 2010년도 소통하며 뛰는 상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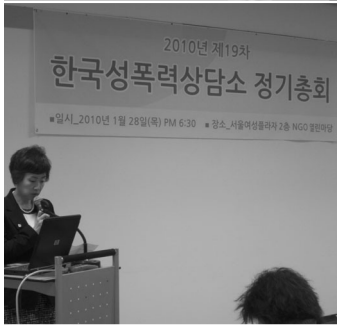
2.5~6 상담활동가 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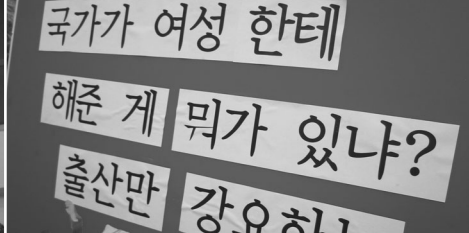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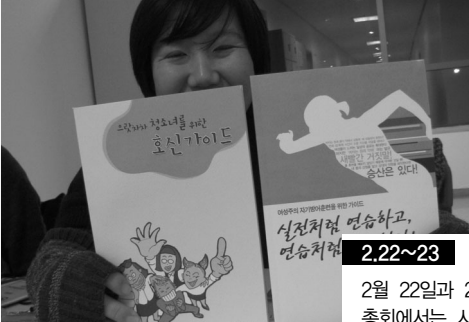
2월 5일~6일, 1박2일 간 남이섬에서 상담활동가 MT가 있었습니다. 남이섬의 아름다운 바닷길과 절경 속에서 가는 시간을 아끼며 친목 다지기 프로그램, 한밤중 휴식하기 자기방어 훈련, 음주 토크를 통해 즉흥 생활 속 여성주의 성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각자 요일의 상담과 사건지원에 바빠 행거기에 소원할 수밖에 없었던 서로를 조금 더 깊게 바라보고 보듬는 시간이었습니다. 2010년 더욱 신나는 여성주의 상담자활동을 기약하며!

2.18 반차별공동행동 차별금지법 상담다하기 포럼

"차별금지법 개정,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 거지"

2월 18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 이후 반차별공동행동의 활동과 차별담론팀에서 고민하게 된 '차별'의 언어화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2부에서는 장애여성공감,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여성민우회의 토론이 이어졌으며, 3부 전체토론에서는 다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22~23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총회

2월 22일과 23일,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사용 압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법 낙태 시술 고발로 강간에 의해 임신한 피해자들마저 낙태 시술을 거부당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원진으로는 부산성폭력상담소 이재희 소장(상임대표),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임혜경 소장(공동대표), 우리 상담소 열림터 송미현 원장(공동대표)이 선출되었습니다.



2.22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디딤돌/걸림돌 발표

2월 22일 전성협 총회에서 2009년도 성폭력 수사재판에서의 여성인권 디딤돌(8건)과 걸림돌(4건)을 발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트랜스젠더 강간죄 인정, 아내강간 인정 등 주목할 만한 판결이 많았으며 아동이나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눈에 띄는 판결도 많았습니다. 또한 '구속전피의자심문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찰, 친권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사건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친권상실청구제도'를 이용한 검사 등 많은 분이 디딤돌을 수상하였습니다. 반면 조OO 사건을 맡았던 수사검사, 공판검사 및 재판부는 음주감경, 법률의 잘못된 적용 등의 이유로 걸림돌을 수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처음으로 수사재판 과정 외에서의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고자 특별상을 신설하였으며, 졸업한 이후에도 학생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상담에서부터 증인출석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지원한 대구 지역 초등학교의 김동준 교사가 수상하였습니다. (*전문은 상담소 홈페이지 참조)



3.6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3월 6일,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한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상담소는 사전마당인 '컬러풀 플리마켓'에서 상담소 회원 분들과 상근자들의 물품들을 판매하며 여성대회 참여 여자 분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고, 거리행진에 참여하여 모두와 함께 102주년 세계여성의날을 축하했습니다. 상담소에 소중한 물품을 기부해주신 회원님들, 상담소와 여성대회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년에도 함께해요!



음주감경 반대활동

12/18 우리 상담소 등 35개 단체가 약 두 달 간 온·오프라인 상에서 진행하였던 '성폭력범죄, 음주감경 반대 서명운동'을 12월 8일에 모두 마무리하고, 22,401명의 서명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양형위원회에서는 아동성폭력 가중 양형인자 신설,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은 단순 주취를 감형요소에서 배제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낙태권 투쟁

프로라이프 의사의 낙태시술 병원에 대한 고발조치 이후, 여성의 임신 출산을 비롯한 몸에 대한 결정권과 건강권에 대한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임신과 출산을 비롯한 몸에 대한 결정권이 여성 자신에게 있어야 함을 알리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12/3 <낙태, 불편한 진실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홍일표 의원실 개최) 발제
2/3 (고발조치 규탄 성명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낙태고발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라
2/18 진보신당 가족정책포럼 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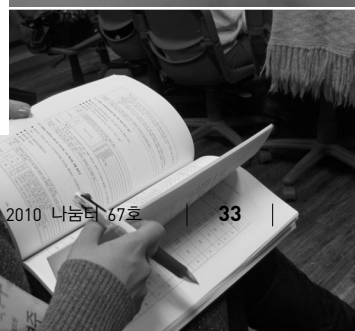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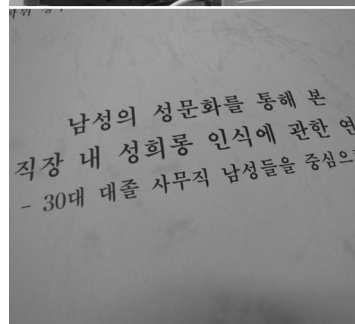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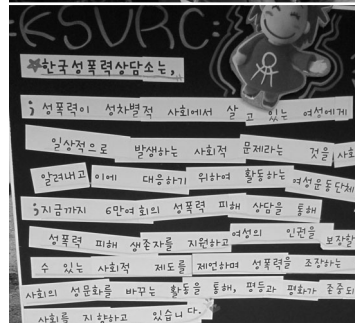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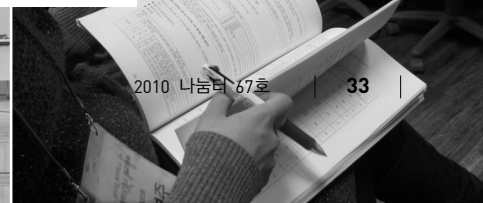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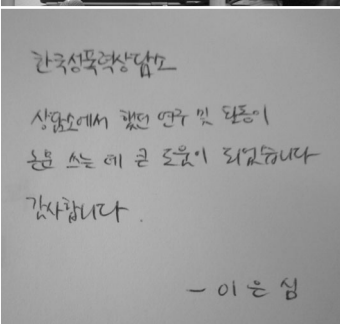
3/5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기자회견

우금민 전 제주지사 민주당 공천 저지

3/3 민주당 대표 면담 및 성명서 발표

3/14 민주당의 우금민 전 제주지사 공천을 반대하는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3/16 민주당 공천심사위, 우금민 전 지사 공천 배제 결정




좌충우돌, 굴러도 괜찮아!

십대스포츠선수들을 위한 인권가이드

◎ 사무국장 오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중·고등학교 운동선수 인권실태 조사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 1,139명 중 725명, 전체 63.8%가 성폭력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발표 후 공동협력사업을 진행하던 대한체육회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표하기도 했다.

‘삽입했느냐’ 등 물리적인 행위 여부로 성폭력을 판단하는 협소한 이해는 여전히 팽배하다. 스포츠선수들이 겪게 되는 성적 스트레스와 폭력이 그토록 단순하다면 해결법도 명쾌할 텐데! 그러나 물리적인 신체접촉만이 문제라고 단순화한다면, 몸의 부딪힘에서 습득과 도전이 이루어지는 스포츠가 여성에게는 부적절하다는 편견이 강화될 지도 모른다. ‘여성’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말이 지금 당장의 위험을 쫓아내 줄지는 몰라도 여성의 몸에 대한 가부장적인 통념을 내포하고 있다면 여자 ‘스포츠 선수’들은 어떻게 자기를 멋지게 정체화할 수 있을까? 남자 선수들의 경우 폭력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살아남고자 하지만, 남성적인 경쟁과 신체적 한계만을 강조하는 엘리트스포츠의 룰 자체를 다시 볼 수 있다면 더 행복한 운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십대스포츠 선수를 위한 인권가이드-내 인생의 플레이어’는 이러한 이야기로 말을 거는 32쪽의 작은 소책자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저변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우리 상담소가 구성·집필해 2010년 1월 발간되었다. 

01 나 돌아보기 여행 가고픈 곳? 좋아하는 영화? 스포츠선수 말고 나를 소개할 말은 많다. 국적, 출신지역, 나이, 가족형태, 경제적 상황도 살펴보자. 이런 차이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불이익이나 차별의 요소가 되고 있다면?

02 미래를 꿈꿀 권리 모두가 역대 연봉 프로선수나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지! 스포츠계에서도 직업과 진로는 참 다양하다. 나의 적성과 흥미 장기에 맞는 다양한 미래를 생각해보자.

03 부당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 팀 안의 문화는 어떤지 체크! 부당한 일을 만났을 때 나는? 결국 폭력이 좋은 성적을 낸다는 말은 타당한가, 반론은 있나? 문화를 바꾸기 위한 나의 작은 액션은?

04 남자인 나? 여자인 나?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에 대한 Yes/No 생각테스트, 그리고 스포츠 내의 성차별 문화, 용어 찾기. 여자들이 더 많이 스포츠할 수 있도록 이런 액션을 해볼까?

05 내 주변에 성폭력이! 어떤 상황을 성폭력으로 느끼나? 그 때의 나의 반응은? 성폭력의 발생 원인에 따른 해결 아이디어들.

06 나의 서포터즈를 만나자 어느 메달리스트도 깊은 우울감과 자기 비하를 느낀다고 한다. 고민이 있을 때 혹은 운동이 하고 싶을 때 더 많은 다양한 사람과 만나보자. 우리 스스로 만드는 청소년인권 선언도!

학생선수들의 다양한 모습과 표정이 서글서글히 담긴 일러스트와 함께 책장을 넘기다가, 불현듯 옆 친구와 속 깊었던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길 바라며.

배급문의 -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2010년, 상담소의 제19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 나눔터 편집팀

2010년 1월 28일 저녁 6시 반, 여성플라자 NGO 열린마당에서는 상담소의 제19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한 해 활동을 보고하고 계획하는 정기총회의 자세한 내용을 나눕니다.

2009년 사업보고 및 결산 보고

2009년, 상담소는 <우리에게 축적된 것은 부지런히 확산하고/새로운 도전은 꾸준히 실험하여 성과를 만들고/대중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 함께 답을 찾아가면서/대중적·혁신적 반성폭력 운동을 실천합니다>라는 활동목표 아래 1년을 뛰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간단한 보고와 함께 동영상을 통해 2009년의 활동을 보고했습니다. PPT가 아닌 영상을 통해 보는 상담소의 1년 활동을,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2009년 결산보고 시 행사수입금과 일반기부금의 예산대비 결산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해 두 차례 진행했던 '막스앤스펜서 바자회'가 선전한 것과 더불어 하반기의 아동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후원자와 일시후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발표


상담소는 올해를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과 공유, 대중과의 소통을 중점으로 두고 활동하려 합니다. 우선, 소셜 미디어를 크게 활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새로 등지를 뜬 블로그를 비롯해, 트위터로 네티즌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려 합니다. 또한 상담소 보유 자료를 웹상에서 공유share하여 가치를 높이려 합니다.

출판과 교육 사업 계획도 있습니다. 성폭력가해자 상담을 위한 워크샵, 일반인 대상의 젠더감수성교육이 있을 예정이고, 블로그에 연재중이기도 한 <성깔있는 성

교육>이 출판될 예정입니다. 참, 계간지 <나눔터> 또한 새로이 변화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부설 쉼터 열림터도 열림터 식구들의 독립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지원계획, 그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친족성폭력과 쉼터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려고 합니다.

우리 상담소만의 여성주의상담, 반성폭력운동의 내용이 더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짧아 더 깊은 토론을 못했지만, 상담소 활동의 지향과 철학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켜 나가고, 구체화된 언어로 풀어내는 집중된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총회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해도 공로상! 올해는 상담활동가로 활동하며 후원회원 배가부터 상담소 집안 살림까지 곳곳에 애정을 보여주신 보듬이 회원님, 상담소 최초의 하우스파티를 열어 새로운 후원을 문을 여신 정진옥 회원님, 퇴임 축하금 전액을 상담소에 기부해주신 김화영 회원님, 상담소에 물난리가 났을 때 흔쾌히 공사를 후원해주시고, 빼걱대는 집을 돌보아주신 황인관 회원님, 열림터 식구들과 활동가에게 알토란 같은 교육을 나눠주고 계신 떠비 회원님, 열림터 가족의 멘토로 마음을 포동포동 살찌워주신 우완 회원님이 수상했습니다.

때로는 긴장하기도, 때로는 함께 웃기도 한 제19차 총회. 2010년에는 더 많은 회원 분들과 상담소, 함께 하기를 바라며! 2010년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소 블로그 <http://www.stoprpage.or.kr/123>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 인터뷰]

♥ 파이 회원님

책임상담원으로 활동중인 파이 회원님이 지난 3월 8일 <기본소득과 여성 - 기본소득과 성평등 증진의 가능성> 토론회 발표를 했습니다. 상담현장에서 만난 피해자가 어떻게 빈곤에 놓이게 되는지를 보며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파이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는 여성 폭력 피해자의 '생존' 문제에서, 최소한의 자율과 협상이 가능하다면 폭력에 굴복하거나, 소외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본소득은 어떤 운동인지, 파이 회원님 언제 한번 자세히 소개해주세요!



♥ 강영 회원님

강영 회원님이 2008년부터 번역하신 테레사 라우어의 <The Truth about Rape>가 4월에 토하나문화 출판사에서 발간됩니다. 미술가로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아픔과 치유를 형상화해온 강영 회원님은 감정, 정신, 신체, 성적 치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담은 책을 "제 존재에 대한 무한한 긍정의 힘에 기대어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에 다다르고자" 작업하셨다고 해요. "'나'의 보다 큰 범주인 여성들에게, 특히 작은 소녀들과 어린 감성을 지닌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강영님. 마음을 울리는 이 책에 모두 많은 응원해주세요!



[훈훈한 기부]

- ♥ 고재경 회원님, 한미화 회원님이 회비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증액해주시는 고마운 마음 그대로 받아 2010년 더욱 알찬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 김진영 회원님이 상자 안 가득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쌀, 김치, 스펀, 고추참치를 비롯하여 주전부리까지 정성스럽게 챙겨주셨습니다. 김진영 회원님의 바다같이 넓고 깊은 마음, 본받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 홍순기 이사장님이 한해보내기에 맛있는 샌드위치를 보내주셨습니다. 덕분에 어느 시골 장터같이 풍성함이 가득한 자리가 되었답니다.
- ♥ 한해보내기에 응원의 마음을 담아 강보길, 이덕화, 장윤정 회원님이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금으로 한해보내기에서 맛있는 음식도 나눠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 한해보내기 바자회를 위해 문학동네에서 문학동네문학상을 수상한 어린이 책을 비롯하여 각종 문학소설 수십 권을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인년 설을 맞아 세계문학전집 3세트도 보내주셨는데요. 문학동네와 2010년 더 좋은 관계로 찾아뵙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상담소의 사업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카피플러스에서 설을 기념하여 한라봉 1박스를 나눠주셨습니다. 한라봉의 향기가 상담소를 그윽이 채워 그 어느 때보다도 코끝이 행복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 조인섭 회원님이 경인년 설을 맞아 화이트 와인 12병을 상담소로 보내오셨습니다. 상담소 활동가 12명을 한명도 놓치지 않고 챙겨주시는 그 섬세한 마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 ♥ 이경환 자문위원님께서 설을 기념하여 한라봉 1박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새콤달콤 맛있는 한라봉으로 활동가들의 몸과 마음이 즐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상담소를 생각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 ♥ 합정동사무소에서 재래시장상품권(10만원)과 신세계상품권(10만원), 쌀 10kg, 라면 1박스를 열림터에 보내주셨습니다. 따뜻한 마음 뿐 아니라 여러모로 신경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 ♥ 3.1 여성동지회에서 떡국 바구니를 보내주셔서 열림터 식구들이 떡국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맛있는 떡국을 보내주신 여성동지회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 김화영 회원님이 총회에서 회원들과 함께 오순도순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며 샌드위치를 보내주셨습니다. 덕분에 총회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 ♥ 3월 19일에 크리스피크림도넛에서 도넛 교환권 10장을 우편으로 보내주셨어요. 달콤한 도넛향이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해져옵니다. 감사합니다.